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4. 9. 6.(금) 11:00 < 9.7.(토) 조간 > 배포 2024. 9. 6.(금)

# 석탄시대를 지나 미래를 준비하는 장성광업소 방문

- 태백시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에서 석탄산업 종사자들에 감사 표해
- 석탄시대를 지나 무탄소에너지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지원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6.(금)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개최된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에 참석하여 광업소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석탄시대를 지나 무탄소에너지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국내 최대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는 지난 88년간 9,400만 톤을 생산하며 국민연료인 연탄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 탄광지역 경제에 이바지하였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 종사자 5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정부가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역량 확대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의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태백시는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서 '29년까지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 장관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연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장하게 되었다."라면서 "태백시를 포함한 폐광지역이 무탄소 에너지 시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자원산업정책국<br>석탄산업과 | 책임자 | 과장 | 양정식 (044-203-5260) |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성재 (044-203-5262) |
| | | | 사무관 | 박상욱 (044-203-526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